

재즈를 듣다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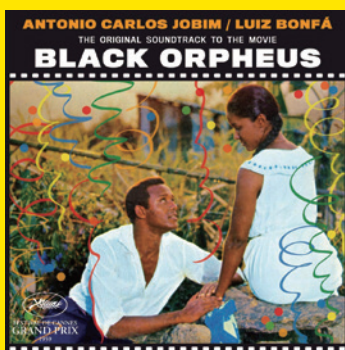
보사노바

글. 이기현 재즈 칼럼니스트

▶ QR 코드



보사노바
플레이리스트



흑인 오르페



갯츠/질베르토

1950년대 후반 브라질에서 보사노바(Bossa Nova)가 등장했다. 'Bossa = 흐름', Nova = 새로운'이란 의미다. 간단히 말해 재즈에 삼바가 합해진, 일종의 '퓨전 재즈'다. 이 용어는 신중히 쓸 필요가 있다. 영어로 바꾸면 뉴 웨이브(New Wave), 프랑스말로 누벨 바그(Nouvelle Vague), 한자로는 신파(新派)가 된다. 정작 뉴 웨이브는 1970년대 펑크에서 파생된 확음악을, 누벨 바그는 1960년대에 프랑스에서 나타난 새로운 방식의 영화를, 신파는 일본에서 서양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연극을 가리킨다. 다들 보사노바와는 무관하다. '아르스 노바(Ars Nova)'를 '신예술'이라고 번역할 수 없는 이유는 '아르스 안티쿠아'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르네상스 시대 음악을 지칭하기 때문이듯, 보사노바 역시 그렇다. 무엇에 대하여 '새로운 흐름'이라는 것일까? '보사노바 = 재즈 + 삼바'란 정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브라질 음악인 삼바(Samba)에 대하여 새롭다는 의미가 있다. 또 하나는 프리 재즈에 대한 반동도 있었다고 본다. 듣고 있자니 어렵고 골치마져 아픈 음악에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남쪽 나라에서 이국적이고 감미로운 음악이 등장하자 얼마나 환호했을지 상상이 간다.

1959년에 영화 '흑인 오르페(= Orfeu Negro)'가 개봉했다. 여기에 수록된 음악인 '카니발의 아침(= Manhã de Carnaval)'이 아마도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실상 첫 번째 보사노바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1964년 버브(Verve) 레이블에서 '갯츠/질베르토(Getz/Gilberto)'란 음반을 발표했다. (예전엔 '질베르토'라고 했으나 요즘엔 '지우베르투'라고 표기하는 듯하다. 과거 습관을 쉽게 고치기 어려워 그냥 질베르토라고 쓰겠다.) 그 해에만 200만 장이 넘게 팔리는 공전의 히트를 했

다. 재즈 역사에서도 가장 많이 팔린 음반 중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빅히트작이다. 그뿐만 아니라 보사노바와 관련한 주요 인물이 모두 참여했다. 이듬해엔 ‘갯츠/질베르토 #2’가 세상에 나왔다. 이것은 카네기홀에서 있었던 공연 음반이다.



스탠 게츠의 '재즈 삼바'

색소포니스트 스탠 게츠(Stan Getz)는 원래 유럽에서 활동하던 쿨재즈 연주자였다. 그러다 1960년대 초 브라질로 연주 여행을 떠났다가 보사노바에 매료돼 1962년 기타리스트 찰리 버드(Charlie Byrd)와 함께 ‘재즈 삼바(Jazz Samba)’를 발표했다. 이것이 크게 히트한 것에 자극받아 2년 뒤 ‘갯츠/질베르토’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게츠에게 있어 보사노바는 일종의 외도(?)로 보인다. 그가 발표한 보사노바 음반은 이 두 장을 제외하면 그다지 주목할 것이 없다. 하지만 아트 페퍼(Art Pepper)를 연상케 하는 부드럽고 나긋나긋한 음색으로 인해 꼭 이 장르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자주 찾아 듣는 연주자 중 하나다.

기타리스트 조앙 질베르토(João Gilberto)는 브라질 사람으로 1959년 발표한 ‘사무치는 그리움(= Chega de Saudade)’으로 세상에 보사노바를 알렸다. 1973년 ‘조앙 질베르토(João Gilberto)’, 1977년 ‘아모로소(Amoroso)’, 1971년 ‘브라질(Brasil)’을 개인적으로 추천한다. 무엇보다 보사노바에서 대단히 중요 인물인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Antonio Carlos Jobim)과의 협력으로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조앙 질베르토의 앨범들

미국 대중음악 가수인 마이클 프랭스(Michael Franks) 1977년 발표한 ‘안토니오의 노래(= Antonio's Song)’는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을 오마주한 작품이다. 조빔은 1927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태어났다. 이 동네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변이 두 군데 있다. 하나는 코파카바나, 또 하나가 이파네마다. 해변에서 조빔과 (작사가인) 비니시우스 지 모라이스(Vinicius de Moraes)가 빈둥거리고(?) 있던 차에 몸매 좋은 여인이 늘 같은 시간에 그 바닷가를 지나가더라는 것이다.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며 모라이스가 쓴 가사에 조빔이 즉석에

서 멜로디를 붙인 것이 ‘이파네마의 소녀’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 여성의 이름은 엘로이자 피네이로(Heloísa Pinheiro)이고 엄마 담배 심부름을 가던 길이었다고 한다. ‘게츠/질베르토’에서 이걸 부른 아스트루드 질베르토(Astrud Gilberto)는 (성에서 알 수 있듯) 당시 조앙 질베르토의 부인이었다. 이 노래가 국제적인 인기를 끌자 ‘이파네마의 소년(= The Boy From Ipanema)’으로 개사해 엘라 피츠제럴드, 사라 본, 페기 리, 다이애나 크롤, 슈프림스 등 수많은 가수가 리메이크했다.

일명 톰 조빔(Tom Jobim)이라고도 불렸던 조빔이 남긴 업적은 생애 전체가 보사노바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다. 앞서 언급한 영화 ‘흑인 오르페’ 역시 음악을 조빔이 담당했다. 그의 첫 번째 정규 음반은 1963년 발표한 ‘음치의 작곡가(= The Composer of Desafinado, Plays)’다. ‘이파네마의 소녀’, ‘얼마나 무심한지(= How Insensitive)’ 등이 수록돼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조빔 작품은 1967년 발표한 ‘파도(= Wave)’이다. 그야말로 세상 근심 다 잊고 바닷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1970년 발표한 6번째 음반인 ‘돌꽃(= Stone Flower)’도 좋다. 1977년엔 조앙 질베르토의 두 번째 부인이기도 했던 가수 미우샤와 함께 ‘미우샤 &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Miucha & Antonio Carlos Jobim)’이란 음반을 발표했다.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앨범들

비니시우스 데 모라이스(Vinicius de Moraes)는 시인, 작사가, 외교관이었다. 음악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사노바의 선구자로서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앞서 언급한 ‘흑인 오르페’의 원작이 되었던 희곡을 쓴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파네마의 소녀’, ‘사무치는 그리움’, ‘음치(= Desafinado)’, ‘행복(= Felicidade)’ 등 조빔이 작곡한 다수의 작품에 가사를 붙인 덕분이다. 시인의 가사가 곁들여지지 않았다면, 어쩌면 보사노바는 한낱 철딱서니의 푸념처럼 비쳤을지도 모른다.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번역된 시는 원문의 맛을 잃어버리기 일쑤이듯, 포르투갈어를 모르는 나로선 모라이스의 업적에 대해 실감을 하진 못한다. 어느 자료를 찾아보니 그리움이나 슬픔을 근본 정서로 하는 파두(Fado)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브라질에도 쇼루(Choro)라고 부르는 비슷한 장르가 있다. ‘Choro = Cry = 울다’라는 의미라고 한다. 내용은 슬프지만 정작 선율은 역설적으로 즐겁거나 흥겹다. 이런 정서가 보사노바로 들어온 건 아닐까 추측한다.

조빔과 모라이스의 보사노바가 유명해지자 당연히 이들을 계승한 음악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실비아 텔레스(Sylvia Telles)는 초기에 활동한 삼바 및 보사노바 가수로, 1959년 ‘모카 사람들의 사랑(= Amor De Gente Moca)’, ‘미스터 조빔의 음악(= The Music Of Mr. Jobim)’ 등 조빔의 작품으로만 두 장의 음반을 발표한 바 있다. 카를로스 리라(Carlos Lyra) 역시 초기에 활동한 가수 겸 작곡가다. 실비아 텔레스가 발표한 첫 번째 싱글인 ‘소녀(= Menina)’의 작곡자이기도 하다. 그 외 주요 작품으로는 ‘재즈의 영향(= Influência Do Jazz)’, ‘마리아 누겐(Maria Ninguém)’ 등이 있다. 추천 음반으로는 1965년 발표한 ‘이파네마 사운드(The Sound of Ipanema)’가 있다. 호베르투 메네스칼(Roberto Menescal)은 1950년대 말 실비아 텔레스의 사이드맨으로 활동하다 수년 뒤 카를로스 리라와 함께 기타 스쿨을 운영하며 영향을 끼쳤다. 대표 음반으로는 ‘보사노바(A Bossa Nova)’, 나라 레앙(Nara Leão)과 함께 연주한 ‘모통이, 기타(= Um Cantinho, Um Violão)’ 등이 있다.

실비아 텔레스의 앨범들



카를로스 리라의
‘이파네마 사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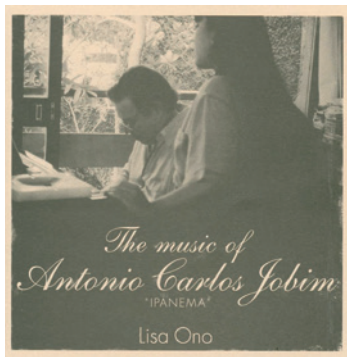


호베르투 메네스칼의 앨범들



세르지오 멘데스의 앨범들

세르지오 멘데스(Sergio Mendes)는 보사노바에만 머물지 않고 재즈, 팝 영역에서도 큰 업적을 쌓은 거장이다. 질베르토, 조빔의 음악에 기본적으로 슬픔이 잠재워 있다면, 멘데스의 음악은 좀 더 춤에 가깝고, 그래서 더 삼바처럼 느껴진다. 대표 히트곡으로는 우선 ‘마스 께 나다(Mas Que Nada)’를 꼽을 수 있겠다. 그의 첫 번째 전성기는 1966년에 결성한 밴드인 ‘브라질 66(Brasil '66)’의 활동과 함께 시작한다. 이 시기에 ‘허브 알퍼트가 제공한 세르디오 멘데스와 브라질 66(= Herb Alpert Presents Sérgio Mendes and Brasil '66)’, ‘에퀴노스(Equinox)’, ‘주위를 둘러봐(= Look Around)’ 등… 신나고 재밌는 음반을 발표한다. 이후 ‘브라질 77’, ‘브라질 86’, ‘브라질 88’ 등 이름이 비슷한 단체를 결성해 활동했다.



리사 오노의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음악’

보사노바의 황금기는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까지다. 이 시기 브라질은 중산층이 두터웠고, 축구에선 펠레가 활약하며 두 번의 월드컵을 우승하는 등 사회적으로 좋은 시절이었다. 삼바가 주로 하층민의 음악이었다면 보사노바는 중산층의 음악이었다. 미국에서 쿨재즈가 여피족에게 인기를 끈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1964년 군부 쿠데타로 독재 정권이 들어서며 희망이 넘치고 낙관적이었던 분위기는 어둠으로 바뀌었고, 보사노바의 전성기도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 2007년에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음악(= The Music of Antonio Carlos Jobim)’을 비롯 여러 음반을 발표한 리사 오노(Lisa Ono) 등 후발 주자에 의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보사노바는 대물림됐다. 조빔의 아들인 파울로 조빔은 가수 겸 기타리스트로, 손자인 다니엘 조빔은 가수 겸 피아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조앙 질베르토와 두번째 부인인 미우샤(Miúcha) 사이에서 태어난 베벨 질베르토(Bebel Gilberto)는 가수로 활동 중이다. 🎹